

삼위일체론적 자아형성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와 스탠리 그렌츠를 중심으로

김 욱 성공회대 신학과 박사과정

서론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와 “정인이 사건”)를 바라보면서, 교육학과 윤리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온 나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의미를 기독교 세계관의 눈 특별히 기독교교육을 통한 자아형성과 관련한 함의를 어떻게 관상觀相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는 칼 바르트와 관련된 잘 알려진 경구를 곱씹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앙 안에서 학문활동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아 실천할 바를 식별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쉽지 않은 과제를 과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결과 또한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반추해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교육학과 윤리학, 신학을 연구해 온 만큼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시대정신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함의와 도전, 호소와 탄원이 매우 크고 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30 청년세대의 생각과 감정, 성향과 상황을 읽고, 그것이 주는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도전과 함의, 그리고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응답과 이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기독교신학의 대응과 해석, 적용을 탐구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기독교교육이란 엄밀하게 정의되기보다는 지역교회와 기독교학교,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전반을 넓게 이르는 광의의 신앙교육을 말한다.

이 논문은 그간 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가지는 친교나 사귄, 공생의 의미를 기독교교육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국내외 기독교교육학자들의 논의들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삼위일체론적 자아형성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삼위일체론의 교육적 함의와 적용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¹⁾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토대가 되는 동방교회의 교부 삼위일체론과 몰트만 이후 복음주의 신학계 안에서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을 개진했던 캐나다의 침례교 신학자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이 가지는 기독교교육적 의미 즉 삼위일체론적 자아형성을 2020년대 전반기의 한국상황 안에서 논구해 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1) 박화경, “몰트만의 신학이 한국 기독교교육에 미친 영향”, ‘위르겐 몰트만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장신대 주최) 발표논문, 2014년 5월 14일.

나는 칼 바르트 이래 재흥된 삼위일체론의 논의가 기독교교육에 주는 함의를 논구하면서, 삼위일체론이 재기하는 공동체와 친교, 사회적 하나님과 관계적 자아 등의 하부 주제들이 인격과 자아라는 개념에 함의하는 바를 밝혀보고, 이를 ‘삼위일체론적 자아’라는 개념으로 명명해 보고자 한다.²⁾

본론

1.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20대 표췌림 현상에서 나타난 ‘시대정신’

2021년 봄의 4.7 재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소속의 시장들의 성비위로 인한 시장직 궐위로 치러지게 된 선거인 만큼 처음부터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의 선거승패가 가지는 의미와 무관하게 이번 선거결과에서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특이점들에 주목해 보게 된다. 내가 주목해서 보는 점은 서울특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25개구 모두에서 야당후보 오세훈이 승리를 거두었고, 수도권 2030세대가 한 번도 몰표를 준 적이 없는 야당후보에게 표를 주었으며, 특별히 20대 남성층의 70% 이상이 야당후보 오세훈에게 몰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역기반 정당구도나 진보보수라는 진영논리, 세대투표 경향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사실상 사상초유의 수도권 2030세대 표췌림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낸 2020년대 전반기 한국사회의 상황과 원인, 구조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신학적으로 성찰되고, 가정과 교회, 기독교학교와 여러 청년기독교인그룹의 교육과 양성과정에서 식별되고, 공감적으로 응답해야 할 기독교 세계관적 의제, 기독교적 학문제자도의 과제이지 않을까 한다.

그간의 지역구도와 긴밀히 연결된 정당구도나 진영논리, 세대투표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 사건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2030세대 특별히 20대들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들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내가 이 논문을 쓰는데 주목하는 것은 다음의 두 기사이다. 하나는 “20대의 무망감”을 다룬 인터넷언론 <뉴시스>의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세월호 사건이 20대에게 준 영향”을 다룬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사이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아무리 힘들다고 외치면 뭐 해요, 달라질 게 없는 데..." 차가운 강에 몸을 내던졌던 22살 A씨가 눈을 뜬 뒤 언급한 첫 마디였다고 한다. A씨는 소방당국에 발견돼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핏기없던 그의

2) 이 논문에서는 자아에 대한 교육학적, 심리학적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기독교적 자아와 관련한 더 깊은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천한다.

- 찰스 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새물결플러스, 2015
- 제임스 휴스턴·옌스 차머만, 양혜원·홍종락 옮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아의 원천들』,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1
- 한스 부어스마, 박세혁 역, 『천상에 참여하다: 성례전적 존재론 되찾기』,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1

얼굴에선 반짝임을 잃은 지 오래다. 소위 말하는 이 '무망감(hopelessness)'은 '위기(Crisis)'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다. 무망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무력감(helplessness)'과는 다르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에도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좌절감에서 기인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발현하는 무망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20대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대 사망률은 2018년 대비 9.6% 오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0대(2.7%)와 60대(2.5%)에서도 자살률이 상승했지만 20대는 이를 훨씬 웃돈다.³⁾

'위기(Crisis)'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들의 좌절감이 무력감을 넘어서서 무망감(hopelessness)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20대 자살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기획기사이다. 이 기사는 '헬조선', 'N포 세대'라는 표현들을 통해 드러나는 20대들의 상황과 시대인식, 그리고 오늘의 시대상황과 사회구조가 20대 청년들의 심리구조 안에 형성하는 정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무망감(hopelessness)으로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무망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20대의 표출임 현상으로 나타났는지를 한 현직 고교교사는 아래와 같이 진단한다.

2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온 현직 교사로서 단언하건대, 지금 20대는 과거의 청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애초 그들에게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를 들이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 이분법적 구분에 대해 고루하다고 여길뿐더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이들 또한 드물다. 우선, 그들에게 보수 야당을 군사독재정권의 후신이라거나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는 건 '네거티브'로 여겨질 뿐이다. 어려서부터 무한경쟁을 내면화한 그들은 시험 성적이라는 계량화된 지표 외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시대의 변화에 아이들의 의식도 따라간다. 변화의 양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교 교육으로는 그걸 막아낼 수 없다. 시대를 달아가는 아이들의 변화에 학교 교육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이유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은 단연 각자도생이다. 공동체와 연대란 교과서에서나 등장하는 말일 뿐, 현실에서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사회는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장이라는 걸, 요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DNA처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관점이 됐다. 그들은 촛불혁명의 성취감과 세월호 참사의 부채감보다, 그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도 자신의 삶도 달라진 게 없다는 열패감을 공유하고 있을 따름이다.⁴⁾

위에서 인용한 시민기자 서부원의 기사는 20대 청년들의 시대정신을 특징짓는 개념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라고 규정한다.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정당화,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을

3) [C세대]①무력감 넘어 '무망감'...그들, 벼랑 끝에 서다, 최지은 기자, 뉴시스, 2021년 4월 6일자.

4) '세월호 세대'가 어찌 국힘에 물표를 던지냐는 질문에 답한다, 시민기자 서부원, 오마이뉴스, 2021년 4월 9일자.

것이라는 인식이라는 20대들의 ‘시대정신’ 안에서 공동체와 연대라는 가치의 유명무실화와 냉소적 희화화, 소위 86세대라고 불리는 민주화세대를 포함한 어른세대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해체와 그 뒤의 권력의지와 탐욕과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등을 2030세대가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정신’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그대로 선거결과로 표현됐다고 하겠다. 내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우려하는 것은 어느 정치세력의 승패가 아니라, 2030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내용과 그 배경인 ‘분노’,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무한경쟁의식에 따르는 배제와 혐오 즉 잔인성과 적대감이다. 서부원은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청/청소년기에 목도한 20대 세대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이렇게 정리한다.

끝으로, '세월호 세대'가 어찌 보수 야당에 물표를 던질 수 있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 세월호 참사가 아이들에게 던져준 '교훈'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예 판판이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보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주저 없이 이렇게 답한다. 국가는 위기에 빠진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기성세대의 통제나 지시보다 안전에 대한 개인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돈이 목숨까지 살릴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것.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덧붙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우리 사회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촛불 혁명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무려 연인원 1700만 명이 겨우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때의 간절한 외침 중에 지금 완수된 게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 어차피 정권만 바뀌는 것일 뿐, 우리의 삶은 그대로라는 냉소만 가득하다. 진보를 자임하는 정권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야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먹힐 리 없다.⁵⁾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불신, 공동체적 연대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결국 돈이 제1가치라는 결론으로 이끌리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이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을 경험하면서 20대 청년세대가 내린 결론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면의 가치관과 인생관, 기독교학문의 용어로는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의 ‘세계관’은 나의 생존기회를 침해하고, 박탈하고, 절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과 대상에 대한 거침없는 혐오와 배제, 피해의식과 적대감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혐오와 배제는 ‘공정’에 대한 열망으로 포장된다. 다시 한 번 현직 고교교사로서 청소년세대를 학교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서부원 시민기자의 분석을 인용하여, 청년세대가 말하는 ‘공정’의 의미를 이해해보려고 한다.

분노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와 기준을 획일화시켰다. 요즘 청년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일렬로 줄 세워 당락을 결정하고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한다. 초

5) 같은 기사.

임 시절엔 그 강력한 '능력주의'를 성토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는데, 요즘엔 뭐가 문제냐며 도끼눈을 뜨기 일쑤다. 적어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사회에서 그것이 '차악'이라는 데엔 모두가 동의한다.

공정성 훼손에 대한 분노가 20대 남성과 여성을 한데 묶어냈다면, 젠더 이슈는 그들의 투표 성향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예컨대, 요즘 남학생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는 우려스러운 정도다. 대학생이 된 제자 중 태반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반농반진일지언정 여자 친구를 사귄 때 '사상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⁶⁾

서부원 시민기자의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20대 청년세대의 획일화된 '공정'개념은 20대 청년세대 간 젠더갈등과도 맥이 닿아 있다. 20대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은 피해의식과 혐오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도 반영되었다.⁷⁾ 20대 청년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가 잘 드러난 4.7 재보궐선거의 2030세대의 투표성향은 생존권과 합당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청년세대의 저항이며 표현이면서, 청년세대에게 주어져야 할 몫들을 배당하지 않는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구성원들의 생존권을 국가운영을 통해 보장해야 하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와 책임추궁, 심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정당한 것으로 전제한다. 동시에 20대 청년세대의 높은 자살률과 '무망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세대들이 충격적인 표쏠림 현상을 통해 절규와 같이 표출한 변화에의 요구 등에 대해 나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차마 공감을 말하기도 민망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 뒤에 혹은 밑에 깔린 20대 청년들의 '시대정신'을 종교적인 차원을 가진 것으로 진단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식별과 응답의 자리에 함께해볼 것을 제안하고, 초대한다.

무한경쟁의 당연화를 통한 획일화된 '공정'개념과 배제와 혐오의 가능성 혹은 정당화, 각자도생의 내면화를 통한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냉소, 무한경쟁 속에서 동료 인간을 경쟁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자세와 '성과주의' 혹은 '효율주의'에 따른 차별의 찬성 등은 실은 시장을 신격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체제정신의 내용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⁸⁾ 이 점을 시민기자 서부원은

6) 같은 기사.

7)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에게 서울의 20대 남성은 72.5%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20대 여성은 40.0%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지역 20대 여성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에게 오세훈 후보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44.0%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의 추구라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20대 남성의 압도적인 오세훈 후보 지지라는 표쏠림현상과는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다.

8) 능력주의(meritocracy)를 비판하는 세 권의 책이 2020년 후반기에 출판되었다.

–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세종서적, 2020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 홍세화 외 공저,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벗, 2020

이상의 책들은 능력주의가 계급과 신분이 세습되었던 과거와 달리 평등과 기회를 개방하고 촉진한다는 약속을 내걸고, 부와 지위가 능력이나 성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공정의 이념을 표방함에도 그 이상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층만 승리하게 짜여진 구도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능력주의는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엘리트를 부정한 특혜에 집착하게 하고, 비난과 무배려의 쌍방갈등으로 이끈다는 점이 지적된다. 능력주의가 혜택을 편중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며, 불신과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제사회구조를 능력주의는 은폐시키고, 엄호하는 이데올

이와 같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IMF 외환 위기 전후로 태어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그들을 진보와 보수 따위의 낡은 인식 틀로 이해하려는 건 바보짓이다.”⁹⁾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에 의해 설계된 재벌위주의 한국국가경제구조는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를 통해 철저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재편되었고, 그것이 2030세대의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을 마주하면서 기독교 가정과 교회,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기독교교육기관들은 이번 2021년도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시대의 표지를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기독교학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밝혀주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하겠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 현상으로 포스트 크리스텐덤 혹은 포스트 크리스차니즘 조류를 맞이하여, 30대 이하 기독교인의 급속한 감소로 교회붕괴위기가 현실화된 오늘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신앙계대 혹은 차세대 신앙전수라는 처절하고 긴박한 교회적 의제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히 그렇다.¹⁰⁾

로기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는 능력주의가 노동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한다.

9) '세월호 세대'가 어찌 국힘에 물표를 던지냐는 질문에 답한다, 시민기자 서부원, 오마이뉴스, 2021년 4월 9일자.

10) 2020년 10월 13일 사망하고, 2021년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져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정인이 미안해” 챌린지를 일으킨 “정인이 사망사건”은 양부모에 의해 입양아동이 장기간의 학대를 거쳐 사망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사망한 아동은 후두골, 좌측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골절되고, 소장 대장 장간막 파열,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전신 피하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부검의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학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입양주관단체가 기독교입양기관이며, 양부모는 각각 침례교회 장로교 목사가정의 자녀들이며, 양부 안 모씨는 모 기독교방송 직원이었다. 양부모는 기독교대학교의 졸업생들로서 캠퍼스 커플 출신이다. 양모가 소시오패쓰적 성향이나 자기도취적 성향을 보인다는 추정에 기반한 개별적 요소를 빼면, 온통 기독교 관련 배경으로 구성된 양부모의 이력을 볼 때 “정인양 사망사건”은 어떤 면에서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준엄한 고발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닐까? “정인양 사망사건” 공판 때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몰려들어 시민들이 외치는 ‘사형’ 구호가 나에게서는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시대검사의 사형구형과 시대의사의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20대들의 ‘시대정신’을 언급한데 이어, 다시 각주에서 “정인양 사망사건”에서 다소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정인이 사망사건”에서 정인 양의 양부모가 보인 행태가 20대의 ‘시대정신’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적인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학교 안에서 자라난 정인 양의 양부모는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된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본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부 안씨와 양모 장씨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에는 두 사람이 입양 한 달여 만에 정인이를 귀찮아하는 정황이 담겼다. 검찰이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정인이를 입양한 지 한 달 반이 된 지난해 3월, 양모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칭하는 답장을 보냈다. 또 장씨는 안씨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줘. 폭력은 안 썼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안씨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양모 장씨가 '지금도 (음식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학대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정인이가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테도 양모는 '애(정인이)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라는 메시지를 양부에게 보냈다. 그러자 양부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쳤다.그러면서도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자겠다'는 양모에게는 '자기는 먹고 자요'라고 답장을 보냈다.("귀찮은 X" "온종일 굶겨봐" 학대 몰랐던 정인이 양부의 문자, 김명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2021년 4월 15일자)

정인 양 양부모의 타자에 대한 이와 같은 적대감과 혐오, 귀찮아함과 가학은 자신들의 이력과 성취를 위한 추구와 병행하는

2.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적 자아형성

“나는 삼위일체가 참 헌신의 유일한 대상이며, 구원의 교리라고 여긴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설교 43>에 나오는 문장이다. 교부들의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은 개인적이고 교회적 인생의 근본적 추동력이며, 모든 신학적 사유와 실천의 중심이며, 기초이며 결론이었음을 본다. 위에서 인용한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설교 중 한 문장은 바로 이와 같은 교부신학의 이러한 삼위일체 중심적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공의회와 신조의 결정, 교리의 확정이라는 지난한 고대교회의 신학과 실천, 예배의 역사에서 절대적 위치인 삼위일체론의 중요성은 지난 20세기 칼 바르트의 신학운동을 거쳐 다시 한 번 그 중심적 위치를 회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교회가 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한 삼위일체론 논의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양상에 더하여 극단적으로 일그러진 방식으로 자신들 삶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재판기간 동안 폭로된 양모 장모씨가 양부 안모씨에게 써보낸 옥중편지의 내용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친자에 대한 영어교육, 반려동물, 주식 그리고 이민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죽임당한 양녀 정인 양은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에서 종속적으로 한 번 등장한다. 이 편지 또한 많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양모 장씨의 옥중편지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 일부를 소개한다.

5쪽 분량의 편지엔 친딸 영어교육과 이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하는 옥중 편지엔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 된다”고 했다.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라고 한 장씨는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려나”라고 썼다. 그는 주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식 정리를 잘했다”고 한 장씨는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했다. 장씨는 또 수감 생활을 하는 재소자나 교도관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도 했다. “내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복음 전하는 재미와 감동이 조금씩 와닿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한 장씨는 “전도 대상자 만나는 게 힘든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치지길 기도한다”고 한 장씨는 시부모님에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고 의 시어른들이시다. 멋진 아들 허락해 주시에 감사드리고 손녀도 돌봐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편지엔 정인에게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민 갈지도...”) 정인이 양모 편지 공개 유튜브, 양부에 피소, 천금주, 국민일보 인터넷판, 2021년 5월 12일자)

끔찍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한 점은 양모 장모씨의 옥중편지 안에서 보이는 죄책감과 공감의 부존재와 기독교 신앙이 아무런 모순없이 공존하며, 기독교 신앙과 경건의 용어들이 전방위적으로 편지내용을 주도해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민, 주식, 반려동물, 영어교육 등의 표현에 옥중전도라는 행위 안에 보여지는 확장 욕구, 탄원서 언급에서 보이는 정당화 욕구가 강하게 내비친다. 한국의 기독교교육이 학생들 인격과 내면 안에 형성시킨 기독교적 자아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기독교교육은 실패를 넘어 사형구형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정인이 양부모의 소시오패쓰 성향이나 자기중심성을 넘어 자기도취적인 성향은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를 내세워온 보수교단들과 소속 교회들의 팽창욕구나 성장주의, 몰사회적 시대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결여와 인식함, 교회내외의 행동적 폭력성, 반성없음과 뻔뻔한 정당화 등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 아닐까? 차별을 찬성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비판과 지탄의 대상으로 자목되어 오면서도, 피해의식과 음모론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극단적 자기중심적 자기도취성을 보여온 것은 아닐까? “정인이 사망 사건”은 한국교회의 교회적 자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성경계시와 신앙고백, 신학전통 등을 통해 고백되어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와 멀어져 세속화, 이교화, 이질화되었으며, 또 얼마나 우상숭배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교적인 교회적 자아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 20대의 ‘시대정신’의 한 형성기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해 본다. 한국 기독교 교육의 가장 직접적 수혜대상으로 보이는 정인이 양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내비치는 자아는 분명 자신을 낮추어 자기를 타자에게 내어주고(자기전달), 자기를 비워 자신 안에 타자가 들어와 살게하는(상호내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독교적 자아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해 본다.

그간에 이른바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불리는 삼위일체론 논의가 요한 지지올라스, 위르겐 몰트만, 미로슬라브 볼프, 레오나르도 보프, 스탠리 그렌츠 등의 신학자들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어, 삼위일체론이 지니는 사회학적, 정치적 의미 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소개되었다. 반면에 삼위일체론이 자아형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한다. 주로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수용하고, 그것에 영감받은 국내외 기독교교육학자들의 기독교교육 논의였다.¹¹⁾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소위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본성의 일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의 근거로 놓아온 그간의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에서 벗어나 성부의 단일원리성을 시작점으로 세 위격의 차이와 고유성을 삼위일체론의 본질적 요건으로 긍정하는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을 정교회 신학자 요한 지지올라스는 “차이란 일치의 본질적 요건이지 그 결과 아니라”고 요약한다.¹²⁾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 특별히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의 삼위일체론에 크게 빚지고 있으며,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는 그 중 한 명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현대의 삼위일체 논의의 토대인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과 교부 자신의 목회현장적 적용을 통해 삼위일체적 자아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을 살펴봄에 있어 요한 지지올라스의 삼위일체론 해석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확립을 위한 공의회와 논쟁의 역사에서 정통적 삼위일체론의 정립에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 중 한 명인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는 탁월한 목회적 신학자로서 삼위일체론이 지니는 인간형성적 의미에 대한 탁월한 적용을 보여주었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를 비롯한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은 요한 지지올라스에 의해 존재의 존재론ontology of being을 극복하는 친교의 존재론ontology of communion을 위한 토대로 해석되었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에서 나오는 친교의 존재론은 기독교교육이 교육목표로 삼아야 하는 삼위일체적 자아의 의미로 이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에게 삼위일체론은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하는 신학적 사변이나 변증의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적 삶의 근본적인 기원과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는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진술이 전술한 <설교 43>의 문장이다. “나는 삼위일체가 참 헌신의 유일한 대상이며, 구원의 교리라고 여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자아는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지니시는 인격성을 인간자아에 있어 창조의 모범과 구원의 목표로 삼을 때 존엄과 자유, 영광과 존재의의를 얻게 된다.¹³⁾ 따라서

11) 각주1을 참고.

12) 요한 지지올라스, 친교와 차이, 이연학 역, 신학전망(광주:2008), 4쪽.

13) “그리스도는 신적인 생명이 삼위일체적 연합임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면서, 사랑하는 내적 연합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신비로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존재에 존엄성과 장엄함을 주는 모든 연합과 사랑의 원천이다.”(푸에블라 문헌 212항)

기독교교육은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 자아의 형성을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과 생명의 흐름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순례하도록 운명지워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지안조스의 삼위일체론을 비롯한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시며, 영원부터 서로 관계를 맺으시며 존재하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성부의 단일원리성을 삼위일체의 단일성의 원리로서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느 가부장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연합과 동등성 안에 계시며,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내보내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다른 위격과의 관계없이 어느 한 위격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한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에 대한 책에서 크리스토퍼 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⁴⁾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에게 성부의 단일원리성과 세 위격들의 동등성과 동일본질성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함께 가고 사실상 동일한 것에 이른다. 삼위일체 내에서의 성부의 우선순위는 신적 일치성과 동등성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일치성과 동등성을 일으키고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크리스토퍼 빌리는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 논의에서 “삼위일체 안에서는 의존성과 동등성이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¹⁵⁾ 세 위격의 관계는 사랑과 생명이라는 성경적 용어로 설명된다. 사랑이란 자기수여 혹은 자기전달의 본질이며, 생명이란 확대와 증가의 본성을 갖는 속성이다. 세 위격은 이와 같은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확장을 서로에게 하신다. 그리고 각 위격은 이 무한한 확장 안에서 즉 서로와의 맺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시며, 자신을 보신다.¹⁶⁾ 특별히 성령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으로서 성부와 성자 안에 존재한다.

14) 크리스토퍼 빌리, 백충현 역, 삼위일체와 영성: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신앙여정,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서울:2018), 356쪽

15) 위의 책, 357쪽.

16) 마주봄이라는 주제는 삼위일체론에서만 아니라, 레비나스에게서 유래하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요한복음서 서두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말씀이 (얼굴과 눈을 맞대고) 마주보고 있었다”고 번역될 수 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외면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성부와 성자의 선제와 관련된 존재적 의미가 아니라 성자와 성부 사이에 나누어지는 심오한 관계적 의미를 요한복음서는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 지지울라스는 아래의 매우 흥미로운 고대교회 이야기를 소개한다.

<사막교부들의 교훈집>에 이집트의 대 마카리오스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날 사막을 걸어가던 중에 나는 죽은 이의 해골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지팡이로 건드려 보았더니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해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 지역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던 대사제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분(pneumaporos)’이신 마카리오스 님이시란 사실을 압니다. 어르신께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들은 고통에서 잠깐이나마 놓여나 휴식을 얻습니다’ 내가 그에 다시금 ‘그 잠깐의 휴식이란 게 무엇이며, 고통이란 또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것이냐?’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큰 불이 우리 둘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쪽의 우리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타인의 등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면 각자는 비로서 상대방의 얼굴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휴식입니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참여한 삼위일체론은 결과적으로 무엇일까? 크리스토퍼 빌리는 그것을 영원한 운동, 역동성이라고 결론짓는다. 크리스토퍼 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⁷⁾

동일본질성의 형이상학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또는 일치성 또는 위격적 구별성의 논리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의 단일원리성에 기초한 영원한 운동 또는 역동성을 포함한다는 점이며, 또한 삼위일체가 그러한 영원한 운동 또는 역동성이라는 점이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에서 도출되는 영원한 운동성 혹은 역동성을 나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교육적 가치로 해석하려고 한다. 삼위일체 안의 세 위격이 일구어내는 운동성 혹은 역동성은 삼위일체가 명제적 정의나 교리적 공식으로는 다 포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하는 생명의 특성이며, 관계적인 속성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기독교교육에서 삼위일체 신론을 교육할 때, 삼위일체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그간의 개념전달적이며, 변증적인 삼위일체론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도전이 이 지점이 있다고 본다. 기독교교육은 주지주의적인 삼위일체론 교리교육에서 정감과 의지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삼위일체적 자아의 형성을 의도해야 한다. 여기서 삼위일체론의 운동성에 대한 현대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논의의 일원인 레오나르도 보프의 해석을 인용해 본다.¹⁸⁾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운동, 자발성, 자유, 미래 및 새로워짐과 관련있음을 이해한다. 삼위일체는 영원한 생명이며, 따라서 자유, 영속적인 주고받음, 멈춤이 없는 자아의 발견과 내어줌이다. 삼위일체는 흠여짐없이 항상 변화하는 새로움이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위한 미래이며 그래서 늘 새롭고 놀라운 존재이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이 갖는 동방교회적 삼위일체론의 이와 같은 특성은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가 삼위일체를 참여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그래서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신학에서는 ‘삼위일체에 참여하기’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참여의 대상으로서의 삼위일체는 그 자체로서 깊은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비롯한 공동체와 인격, 자아가 타자와 맺는 방식에 큰 함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앞서 논의한 이번 4.7 재보궐 선거결과(와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 드러나는 2030세대의 시대정

(요한 지지울라스, 천교와 차이, 이연학 역, 신학전망(광주:2008), 3쪽. 각주 10.)

근래에 유행하는 ‘얼굴’ ‘타자의 얼굴’이라는 철학적 담론과 관련하여,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 지옥이며, 얼굴을 봄이 휴식이라는 사막교부들의 통찰은 깊은 함의를 준다.

17) 위의 책, 366쪽.

18) 레오나르도 보프, 성삼위일체 공동체, 김영성 김옥주 역, 크리스천 헤럴드(서울:2014), 86쪽.

신이 타자를 만나는 방식과 관련하여 삼위일체적 자아형성이 기독교교육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를 포함하여,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의 고대교회에게 있어 신비란 인간 이성이 추적하거나 논구할 수 없는 한계라는 의미보다 끝을 다 알 수 없는 신적 생명이라는 무한성과 불멸성으로 인간을 초대하려는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라는 의미가 강했다.¹⁹⁾ 다시 말해 고대교회의 신비이해는 자신의 신적 생명과 사랑으로 인간을 초대하여, 인간존재들과 연합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혹은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그리하여 인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끝없는 소통과 순환 안에 존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이 구원론에 주는 의미이다. 동방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구원의 상태를 신화theosis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일일 뿐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바로 그 기독교적 삶을 방향지워주는 이정표이다. 고대교회는 신적 생명과 사랑으로 인간을 초대하여 인간과 연합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성경과 성례전 또한 신비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신비개념은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에 참여하기’ 개념에서 나타나는 참여의 방편으로서의 성경과 진리, 세례와 성찬례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서방교회 신학의 주초라고 할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위격이 이루는 하나됨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²¹⁾ “신적인 각 위격은 다른 위격 안에 있으며, 모두는 각자 자신 안에 있고, 각 위격은 모두 안에 있으며, 모두는 모두 안에 있고, 모두는 오직 한 하나님이다.” 타자를 나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며,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서 심지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조건 안에서만 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시대정신이 될 때 삼위일체론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타락 사건 이래로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차이를 다루는 모든 배제와 학대의 방식에 대한 회개의 기준이 된다. 타자와 타자가 가지는 차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삼위일체적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을 삶의 본령으로 여기는 삼위일체적 자아의 형성은 모든 시대와 특별히 우리 시대에 큰 기독교교육적 과업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위일체적 자아는 세 위격이 서로를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상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낮춤(그리스어 synkatabasis, 라틴어 condescensia)’을 통한 자기증여, 자기를 비워 자신 안에 상대가 들어와 살게하는 ‘자기비움(그리스어 kenosis)’라는 삼위일체의 빛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발견하는 자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19) 위의 책, 34쪽.

20)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를 다루는 연구서에서 저자 크리스토퍼 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몇몇 구절들에서 경륜은 구체적으로 성육신을 가리킨다. 즉 신화(神話)로 성장하는 과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일들을 통치하는 일차적인 행동으로서의 성육신을 가리킨다.”(크리스토퍼 빌리, 백충현 역, 삼위일체와 영성: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신앙여정,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서울:2018), 334쪽)

21) 레오나르도 보프, 삼위일체 공동체, 김영성 김옥주 역, 크리스천 헤럴드(서울:2014), 98쪽에서 재인용.

부활을 통해 이 지상의 사건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상에 내려온 삼위일체적 사건이며, 신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적 신적 생명 안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이에 응답한 이들이다. 삼위일체적 자아이해에 있어 죽음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거부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지지올라스는 “지옥과 영원한 죽음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²²⁾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편입, 재편된 한국 상황에서 20대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성과주의에 의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없는 승인을 ‘공정’이라고 느끼며, 조건적 수용과 배제, 혐오를 한 요소로 포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정신 앞에서 삼위일체적 자아이해는 청년세대의 타자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강한 시대비평적 성격을 띄게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³⁾

만약 복된 삼위일체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행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 길은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급진적으로 행동하며, 완전한 내어줌과 원수들과도 함께하는 궁극적 연대로써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레오나르도 보프의 지적에서 유의미한 것은 삼위일체와의 연합이 지상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타자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희생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말하는 공생이라는 주제가 1세기 신학자들의 낭만적 삼위일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난점을 넘어서서 남미의 상황을 배경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되 그의 죽음에까지도 연합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구원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삼위일체적 자아를 교육할 때, 기독교교육은 희생이라는 주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레오나르도 보프의 글을 한 대목 더 인용해 보려고 한다.²⁴⁾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늘 포용적이고, 늘 친밀하며, 늘 상호연합적인, 차이를 늘 받아들이고 불평을 피하는 삼위일체적 논리를 기꺼이 포용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화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얼마나 많은 정의가 있겠는가?

3.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적 자아형성

자아 논의에 있어서 자존감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자존감은

22) 요한 지지올라스, 친교와 차이, 이연학 역, 신학전망(광주:2008), 3쪽.

23) 레오나르도 보프, 성삼위일체 공동체, 김영성 김옥주 역, 크리스천 헤럴드(서울:2014), 46쪽.

24) 위의 책, 101쪽.

더욱 현실적인 주제일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와 심리적 치유 사이를 연구한 박노권은 이렇게 말한다.²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 시기에 발달시킨 낮은 자아상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런 경향은 특별히 이 사회가 고도로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뒤떨어지면 자신은 이 문화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어린 시절 가졌던 충격적인 정서적인 경험들의 후유증이 우리의 신체와 신경 계통에 긴장, 불안, 기타 각종 심리적 방어 체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점점 증명되어 가고 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의 자존감에 대한 논의에서 자존감의 4가지 원천을 혈통, 타인의 사랑, 역할 수행, 영원한 의미로 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언급한다.²⁶⁾ 특별히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과 자존감의 관계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주장은 이렇다.²⁷⁾

우리는 단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애착된 정도가 아니다. 이 애착의 근거-다시 말해 애당초 이 애착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신약 성경은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게 직접 나온 것임을 강조한다. 사랑은 애착을 가능하게도 하고, 그 애착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자존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의 관계 사이를 이신칭의에 대한 루터의 설명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조건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자기긍정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중심에 놓은 신학적 논리구조와 적용은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신학원칙에따르는 것으로,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 이래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 개신교 신학의 본질적 자세이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한다.²⁸⁾

앞의 이야기는 또 자존감 문제에 대한 루터의 접근이 결국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하며 기독교적인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10이라는 등급을 줄 필요가 없다...죄인의 칭의는 착각이나 법적 허구나 가장된 거룩함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되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새로 지어 마침내 10의 본성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우리는 10의 신분을 받았다. 그것이 격려와 동기가 되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단점 대신 하나님의 힘과 성품을 입어 상향 이동한다.

25) 박노권,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성 훈련: 심리적 치유와의 관계분석, 한들출판사(서울:2011), 106.

26) 알리스터 맥그라스, 자존감: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서울:2005), 172쪽.

27) 위의 책, 172쪽.

28) 위의 책, 127쪽.

‘헬조선’이라는 말에서 보이듯 사회구조와 체제에 의해 무한경쟁으로 떠밀리며, 내일의 희망이 없는 무망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몰린 청년세대는 어떤 자존감을 가진 자아로 형성되게 될지를 생각해 본다. 이에 대한 계량적, 통계적 조사결과를 찾지는 못했지만, ‘무망감’에 의한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청년세대의 ‘시대정신’과 연동된 자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와 세대에게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드러난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십자가 처형사건의 더 깊은 배경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자존감의 토대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신칭의보다 더 앞서는 자존감의 토대는 바로 삼위일체이다. 복음주의 신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강조하는 지점으로 성숙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스탠리 그렌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⁹⁾

사도였던 성경의 한 저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를 보여 준다. 영원토록 신적인 삶-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삶-은 “사랑”이라는 말에 의해서 가장 잘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사랑, 즉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의 상호적인 자기헌신은 한 하나님의 통일성을 형성한다. 영원토록 함께 결합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의 진술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일체 내적인 관계를 가리킨다...요컨대,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회적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이다.

자아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을 위한 토대로서 삼위일체론이 바르게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삼위일체적 사건으로서, 삼위일체론의 구도 안에서도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론은 난해한 교리이거나 부차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이해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측면에서 토대가 된다는 교부모적 확신을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도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복음주의 신학 안에 위치시킨 스탠리 그렌츠의 작업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스탠리 그렌츠는 삼위일체론의 함의를 인격, 공동체, 관계의 영역으로 적용한다.³⁰⁾

하나님이 사회적 삼위일체, 즉 통일성 안에서의 다수성이기 때문에, 인류의 이상은 고립적인 인격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인격들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우리의 고립적인 상태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삶이란 관계 속의 삶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에 따른 자아는 관계적 자아이며, 공동체적 자아이다. 스탠

29) 스탠리 그렌츠, 신옥수 역, 조직신학: 하나님의공동체를 위한 신학, 크리스천다이제스트(서울: 2021), 126쪽.

30) 위의 책, 132쪽.

리는 그의 갑작스런 사망 직전까지 구상한 6권의 조직신학 구상에서 2권까지를 마쳤는데, 그 중 한 권의 책제목이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인 것에서 이 사실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스탠리 그렌츠는 인간의 근원으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적 인간공동체의 실현으로 교회를 주장한다. 스탠리 그렌츠는 ‘하나님을 사회적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은 광범위한 교회론적 함의를 지닌다’고 옳게 지적한다.³¹⁾ 따라서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을 따르는 자아형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위에서 동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적 자아의 형성을 뜻한다. 이것은 파편화된 관계를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시대의 기독교교육에게 심대한 도전과 책무를 부여하는 통찰이다.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적 자아 사이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상적 인간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 구도에서 보면 삼위일체적 자아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에 의해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적 자아형성의 주된 공간이 교회공동체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성을 교회의 본성과 DNA로써 가지는 공동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동료 인간을 만나는 친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다음세대 특별히 청년세대의 자아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 말은 교계와 학계를 포함하는 교회는 교회교육현장 뿐 아니라 교인가정과 기독교학교를 포함하는 기독교교육기관에게 삼위일체론이라는 분명한 교육적 기초와 이 기초에서 도출되는 교육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해야 함을 뜻한다.

결론

나는 삼위일체론이 기독교교육 특별히 자아형성과 관련하여 갖는 교육적 함의를 논구해 보았다. 삼위일체론과 자아형성의 관계를 논하기 앞서, 최근에 이슈가 된 두 청년세대와 관련한 사건,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표출현상과 “정인이 사망 사건”에 나타난 20대 청년 특별히 20대 남성의 ‘시대정신’에 대한 분석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에서 유추되는 자아와 삼위일체적 자아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나는 삼위일체론이 공동체와 친교, 인격과 자아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자아형성에 있어 함의하는 바를 밝혀보고, 삼위일체론의 교육을 통해 형성되도록 의도되는 자아를 ‘삼위일체론적 자아’라고 명명해 보았다. 삼위일체론이 자아의 개별적인 면에서 갖는 의미는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 중 한 명인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찾아 보았다. 이어서 삼위일체론이 자아의 공동체적인 면에서 갖는 의미, 즉 공동체적 자아 특별히 교회적 자아로서 갖는 의미는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논구해 보았다.

31) 위의 책, 692쪽.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이 자아형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는 사랑과 생명의 순환, 타인에 대한 자기증여와 내주허용, 조건없는 타자에 대한 수용 등이다. 이것은 각자도생과 획일화된 '동정'에 대한 확신적 수용 속에서 형성된 자아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응답이 된다. 특별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절대주의가 형성하는 자아에 반해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삼위일체론적 자아는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연대와 일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방교회 교부들의 삼위일체론과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최근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교육하면서 기독교교육은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자아형성을 의도하여야 한다.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적 자아는 삼위일체론이 갖는 근본적 강조점인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사랑을 토대로 한다. 이것은 삼위일체적 자아형성이란 사랑을 근본적인 기원으로 삼는 자아형성임을 뜻한다. 또한 스탠리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이 기독교교육의 자아형성과 관련하여 갖는 심대한 의미는 삼위일체적 자아는 공동체적 자아임을 밝히고, 공동체적 자아로서의 삼위일체적 자아의 형성장소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 크리스토퍼 빌리, 백충현 역, 삼위일체와 영성: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의 신앙여정,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서울:2018)
- 스탠리 그렌츠, 신옥수 역, 조직신학: 하나님의공동체를 위한 신학, 크리스천다이제스트(서울: 2021)
- 레오나르도 보프, 성삼위일체 공동체, 김영성 김옥주 역, 크리스천 헤럴드(서울:2014)
- 알리스터 맥그라스, 자존감: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서울:2005)
- 요한 지지울라스, 친교와 차이, 이연학 역, 신학전망(광주:2008)
- 박노권,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성 훈련: 심리적 치유와의 관계분석, 한들출판사(서울:2011)